

##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의 다원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lurality of Pictorialism

하윤순  
경남정보대학교

Ha yun-soon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 요약

예술의 새로운 표현양식으로서 또는 매체와 장르의 형식적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회화와 사진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다. 최근 연극, 영화, 미술, 사진, 문학, 무용,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분야가 혼합된 혼성장르 또는 개념으로서의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은 문화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내용보다는 무분별한 디지털 프로세스 기반의 융합을 통한 시각적 표현작업들이 다원주의적 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 Abstract

Painting and Photography have been developed by exchanging the influence mutually as a new expressive form of art, and the medium and the genre in terms of formal experiments. Variety of artistic fields such as theater, film, art, photography, literature, dance, music abuse the idea of Interdisciplinary Art in the name of art via digital process based hybrid media arts.

## I. 서론

예술의 새로운 표현양식으로서 또는 매체와 장르의 형식적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회화와 사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예술 활동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예술계는 해체와 융합이라는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s)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 활동으로서, 탈장르 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 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사진과 미술의 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픽토리얼리즘을 분석하여 사진과 회화의 융합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21세기 예술의 화두가 된 다원성이란 서로 다른 장르를 융합하는 것이 아니며 '분리의 전문화'의 길을 걸어온 서양 철학과 예술의 근본적 반성일 뿐으로서 우리에게 사실 해방 전까지 존재해왔던 미학이란 사실에 주지해야 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진과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작가들의 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미지언어로서의 사진의 역사를 살펴보고 픽토리얼리즘의 개념과 현대사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 II.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

회화와 사진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영

어로 'Picture'라는 단어는 사진과 회화를 통칭한다. 사진이 등장한 이래부터 현재까지 사진은 회화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다. 디지털 시대의 사진은 미술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술작가들이 사진을 작품의 매개로 사용하며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시각적 한계를 넘는 사진의 재현 능력은 사진의 핵심이 되는 특성으로 사진과 타 매체의 혼용 및 적극적인 변용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많은 작가들에게 사진은 새로운 표현재료가 되었다. 디지털사진장비의 발전과 보급으로 사진과 사진적 이미지를 자유로이 만질 수 있게 되면서 사진은 이제 작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매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3]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독특한 사진경향으로 회화적 표현기법과 감성을 사진에 적용한 회화주의 예술사진을 의미하며, '회화주의사진' 또는 살롱사진(Salon Picture)이라고도 불린다. 사진의 단순한 기록성을 배격하고 회화적 감성을 사진 영역에 끌어들이는 같은 경향은 사진을 단순한 기술적 재현이 아닌 예술적 차원으로 승격시켰다.<sup>1)</sup> 특히 픽토리얼리즘 작가들은 당시의 아카데미한 회화의 기준에 맞추어 예술사진을 제작하는 데 있었고, 사진에서 회화의 독특한 효과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픽토리얼리즘이 사진고유의 사실적이고 즉물적인 묘사를 저버리고, 회화의 표현기법과 질감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미디어로서 사진의 독창성은 사라지고 예술적으로 경시되었다. 예술의 정의, 예술작품, 예술활동 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념

1) 살롱사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적일 수밖에 없다. ‘만든다’라는 행위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작자가 작품을 구상해서 디자인한다는 정신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물적 대상을 작품으로 완성시켜 가는 수작업적인 측면이다. 전자는 독창성이 가치적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기교적 정교함이나 에너지의 행사 등이 의미를 가진다.[4] 피터 에머슨(Peter Henry Emerson, 1856-1936)은 사진과 회화의 차이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사진의 과학기술적 특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예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머슨은 자신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상(Impression)’으로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에머슨의 자연주의 사진은 회화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사진이 새로운 표현매체의 예술로 자리 잡는 최초의 사진적 자각이었으며 예술로서의 사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픽토리얼리즘(회화주의) 작가들은 사진 촬영을 위한 장비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보다 심리적 요소를 반영하는 자연의 변형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사진을 통해 자연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Imagination)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사진의 비예술론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려 그만의 독자적인 예술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단순히 회화를 모방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픽토리얼리즘(회화주의) 작가들은 사진촬영을 통한 사물의 정확한 표현보다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요소를 표현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자연을 더 완벽하게 재창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특히 인화과정을 조정하고 사진재료들도 종이 위에 직접 조제한 유제를 손으로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연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소프트 필터, 연기, 안개 등을 이용하여 비은염 사진을 제작하였다.

### Ⅲ. 결과 및 결론

#### 3.1 사진과 미술의 다원성

기존의 사진과 회화에서 표현기법으로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작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19세기는 회화적 사진의 시대였다. 현실을 정확히 포착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사진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회화 예술의 영역에 커다란 영향과 함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물을 기록하는 사진은 예술작품이 아니며, 사진을 이용하는 삼류화가들이 회화의 수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진과 회화의 융합을 통한 예술적 다원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진과 예술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술적 측면의 활용 가능한 구체적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 참고 문헌 ■

- [1] “제1기 2005/2006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294, 2006.
- [2] 홍성민, “DIWO; 동시대 다원적 예술의 태도”, 4인 4색 다원예술론, 2012, 웹진 아르코  
<http://webzine.arko.or.kr>
- [3] 권순평, “사진 매력에 예술이 반했다”, 사진미학 교실,  
<http://blog.daum.net/umji0112/13405066>
- [4] 와타나베 마모루 지음, 이병용 옮김, “예술학”, 현대미술사, p. 176 ~ 177. 1994
- [5] 김우룡, “사진과 텍스트”, 눈빛, 2006, p110. / 이찬훈, “인문학적 상상력과 디지털 사진예술의 활용 가능성 연구”, 大同哲學, Vol.40, 2007. 재인용